

가정상비약에 대한 소비자 인식 조사결과

- 국민들이 가정상비약을 구입할 때 '야간이나 공휴일에 구입이 곤란하다'는 응답자가 61.4%를 차지하였음
- 가정상비약을 구입할 때 야간이나 공휴일에 약국이 문을 닫아 불편함을 경험한 응답자는 78.3%였음
- 가정상비약을 약국 이외의 장소에서 판매하는 것에 대해 83.2%가 찬성하였음
- 지난 1년 동안 가정상비약을 사용하다가 본인이 부작용을 경험한 적이 있었던 응답자는 29명(2.9%)으로 나타났다

1. 조사 개요

- 가정상비약은 '가벼운 질환에 대해 일반가정에서 자주 사용하는 의약품으로서,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어서 의사, 치과 의사의 처방없이 소비자가 약국에서 직접 구입할 수 있는 소화제, 진통제, 감기약, 소독약 등'으로 정의할 수 있음
- 본 조사의 목적은 가정상비약 구입에 따른 불편과 사용 과정에서의 부작용 경험 여부를 조사하고, 가정상비약의 약국 이외 장소 판매에 대하여 소비자인 국민들의 인식을 파악하고자 하는 것임

[표 1] 조사의 개요

구분	내용
조사대상	전국 16개 시·도 20세 이상 성인남녀
조사기간	2011. 9. 26 ~9. 29
표본크기	1,000명
표본추출방법	지역·성·연령별 인구비례할당에 의한 층화비례추출법
자료수집방법	전화조사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3.1%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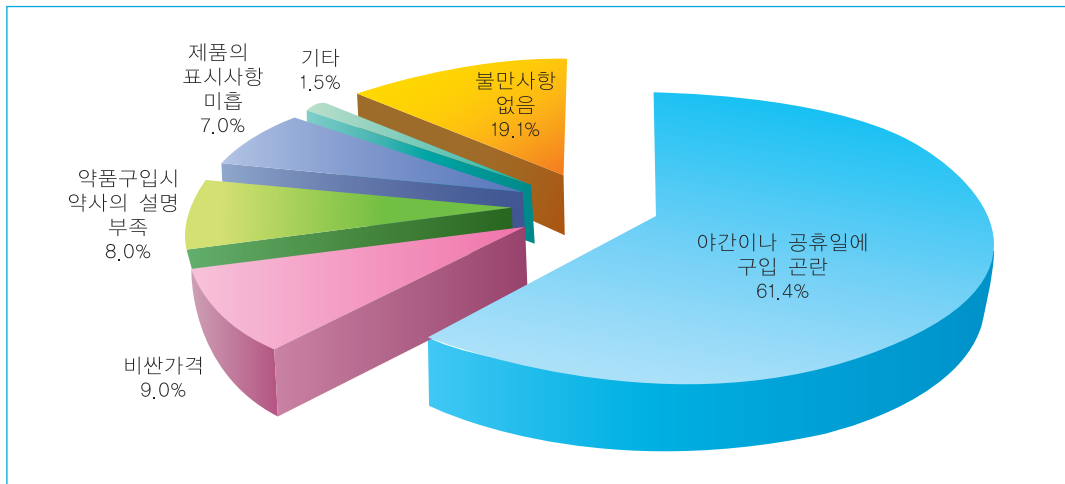
2. 조사 결과

가정상비약 구입시 불만사항

- 가정상비약을 구입할 경우 가장 큰 불만사항으로는 '야간이나 공휴일에 구입이 곤란하다'가 61.4%로 가장 많았고, '가격이 비싸다'는 응답은 9.0%, '약품구입시 약사의 설명이 부족하다'는 응답은 8.0%로 나타났다
- 거주지역별로는 도시지역 거주자들이 '야간이나 공휴일에 구입이 곤란하다'는 응답이 64.7%로 높은 반면, 농어촌지역 거주자들은 46.7%로 상대적으로 낮으나 '가격이 비싸다'가 13.0%로 높게 나타났다

○20대~40대 등의 연령군에서 ‘야간이나 공휴일에 구입이 곤란하다’는 의견이 높은 반면, 연령이 높아질수록 이 비율이 낮고 ‘가격이 비싸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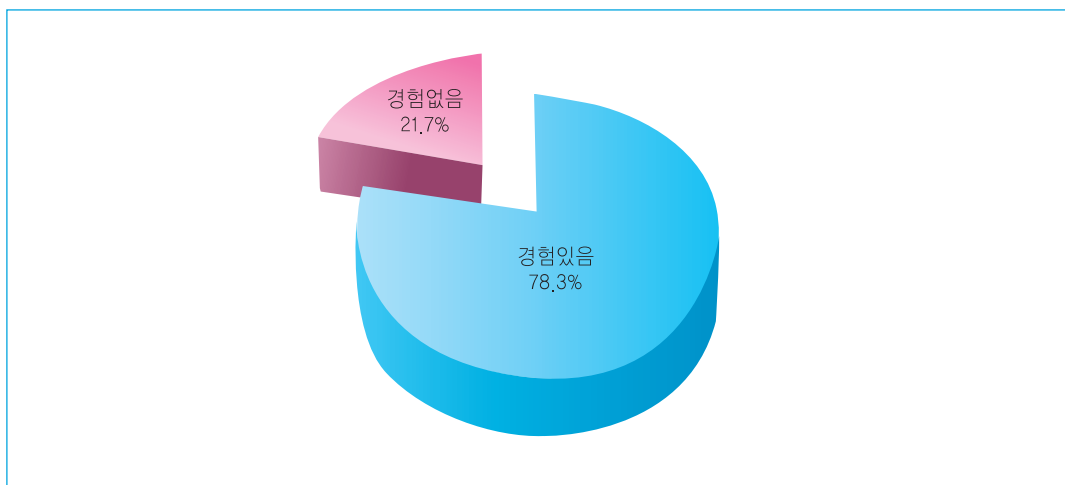
[그림 1] 가정상비약 구입시 가장 큰 불만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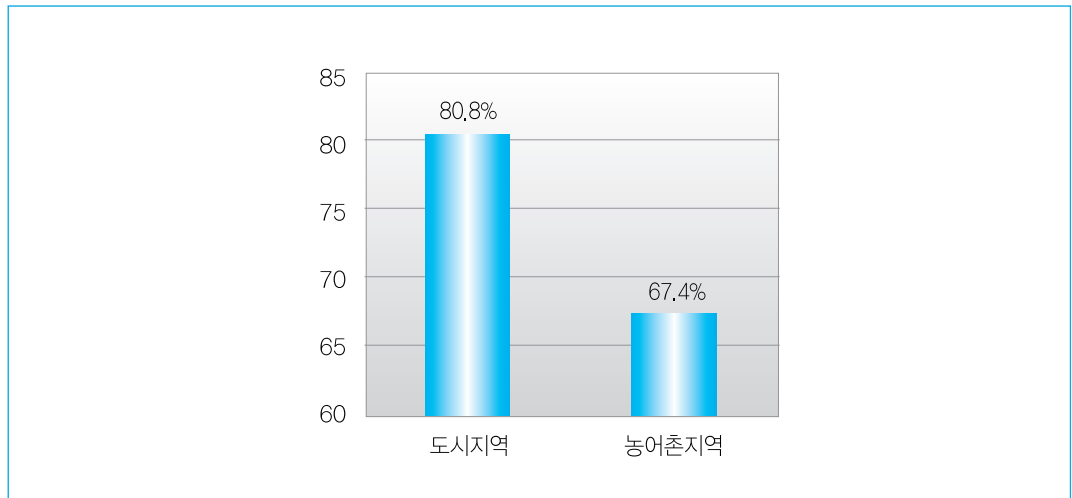
□ 가정상비약 구입시 불편함 경험 여부 및 대처 방법

- 가정상비약을 구입하려고 할 때 야간이나 공휴일에 약국이 문을 닫아 불편함을 경험한 적이 있는지에 대하여 응답자의 78.3%가 그런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음
- 농어촌지역 거주자(67.4%)에 비해 도시지역 거주자(80.8%)의 경험율이 높았음
 - 도시지역 거주자일수록 직장근무 등으로 야간에 상비약을 이용해야 할 경우가 많고, 야간이나 공휴일에 사회활동이 활발하기 때문인 것으로 추측됨
 - 자녀양육 연령층이 도시지역에 많이 거주하는 것도 하나의 요인으로 사료됨

[그림 2] 가정상비약 구입시 야간 · 공휴일에 약국이 문을 닫아 불편함을 경험한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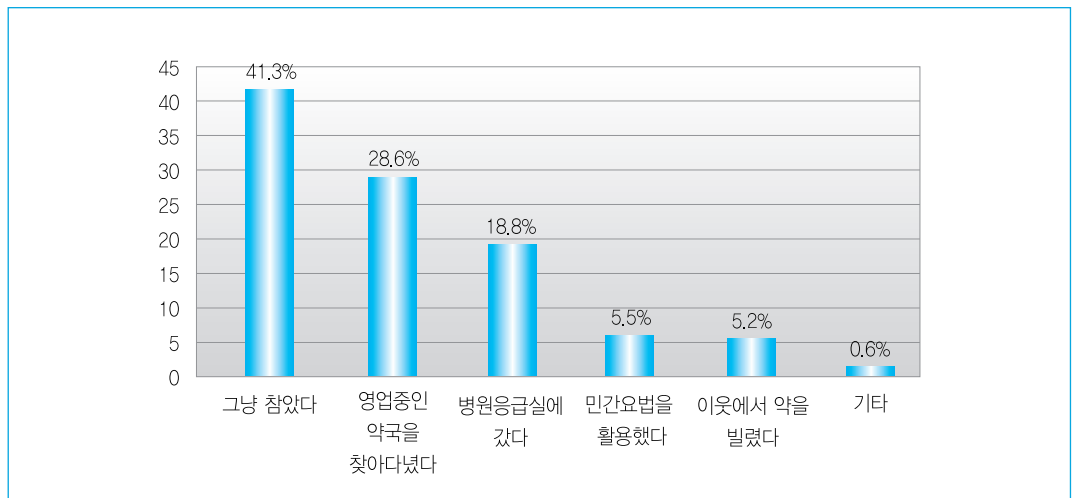


[그림 3] 거주지역별 가정상비약 구입시 야간·공휴일에 약국이 문을 닫아 불편함을 경험한 비율



○야간이나 공휴일에 약국이 문을 닫아 불편한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하였는지를 질문한 결과, ‘그냥 참았다’ 라는 응답이 41.3%로 가장 높았고, ‘영업중인 약국을 찾아다녔다’ 가 28.6%, ‘병원 응급실에 갔다’ 가 18.8%로 나타났음

[그림 4] 야간·공휴일에 약국이 문을 닫아 불편한 경우의 대처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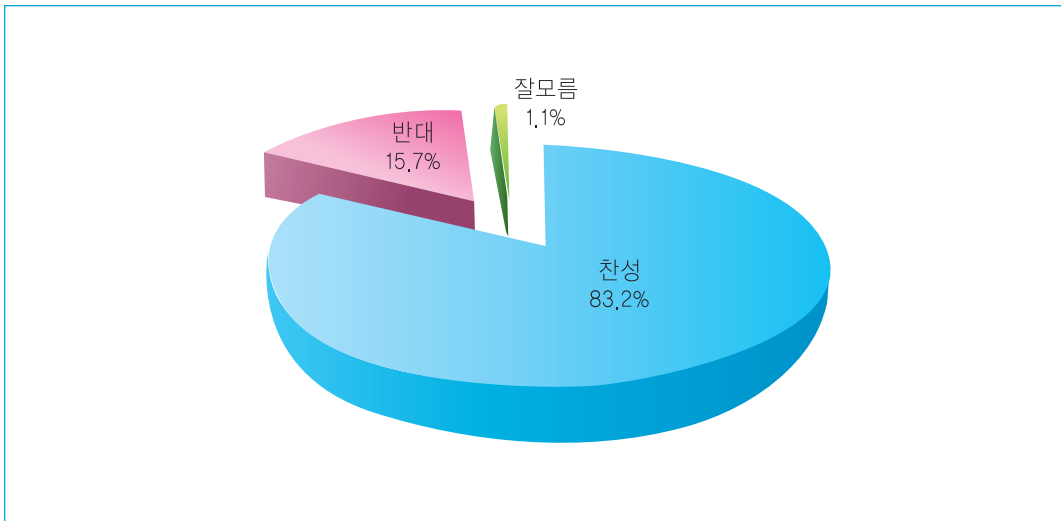


주: 분석대상 수는 ‘불편했던 경험이 있었던’ 783명임

□ 가정상비약의 약국 이외의 장소 판매에 대한 의견

○응답자의 83.2%가 가정상비약을 약국 이외 장소에서 판매하는 것에 대해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그림 5] 가정상비약의 약국 이외 장소 판매에 대한 의견



- 도시지역 거주자들의 찬성율(84.6%)이 농어촌지역 거주자들의 찬성율(77.2%)에 비하여 높게 나타났음
 - 도시지역 거주자들이 야간이나 공휴일에 약국이 문을 닫아 불편함을 느낀 비율이 높게 나타난 결과가 반영된 것으로 판단됨
- 고학력일수록, 그리고 30대~50대 연령층일수록 찬성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음
 - 고학력인 경우 및 30~50대 연령층인 경우 농어촌지역보다 도시지역에 거주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주거지역과 학력, 연령 중 어느 요인이 가정상비약의 약국 이외 장소 판매에 대한 의견에 주요하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말하기는 어려움
- 참고로, 한국소비자원이 일반의약품의 약국의 판매에 대해 실시한 조사결과에 의하면, 71.2%가 약국의 판매를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음¹⁾
 - 한국소비자원에서는 일반의약품을 대상으로 하였으나 본 조사에서는 일반가정에서 자주 사용하는 가정상비약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찬성비율이 높게 나타난 것으로 판단됨

1) 김재영·백병성, OTC의약품 판매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한국소비자원

[표 2] 가정상비약의 약국 이외 장소 판매에 대한 의견

(단위: %)

구분	찬성	반대	잘 모름
전체	83.2	15.7	1.1
거주지역**			
도시	84.6	14.6	0.9
농어촌	77.2	20.7	2.2
연령***			
20대	74.4	25.6	-
30대	88.3	11.7	-
40대	89.1	10.0	0.9
50대	89.2	10.2	0.5
60대	79.3	18.0	2.7
70대이상	66.7	28.0	5.4
학력***			
중졸이하	74.7	21.7	3.5
고졸	81.8	17.6	0.6
전문대졸/대졸	88.4	11.6	-
대학원졸이상	85.3	11.8	2.9

** p<.05 *** p<.01

□ 가정상비약 구입시 약사로부터의 설명 경험 여부 및 설명의 도움 정도

○ 전체 응답자의 48.0%가 지난 1년간 가정상비약을 구입할 때 실제 약사로부터 사용 방법을 설명들은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경험이 없다는 응답은 50.5%로 나타남

[표 3] 가정상비약 구입시 약사로부터 사용방법 설명을 들은 경험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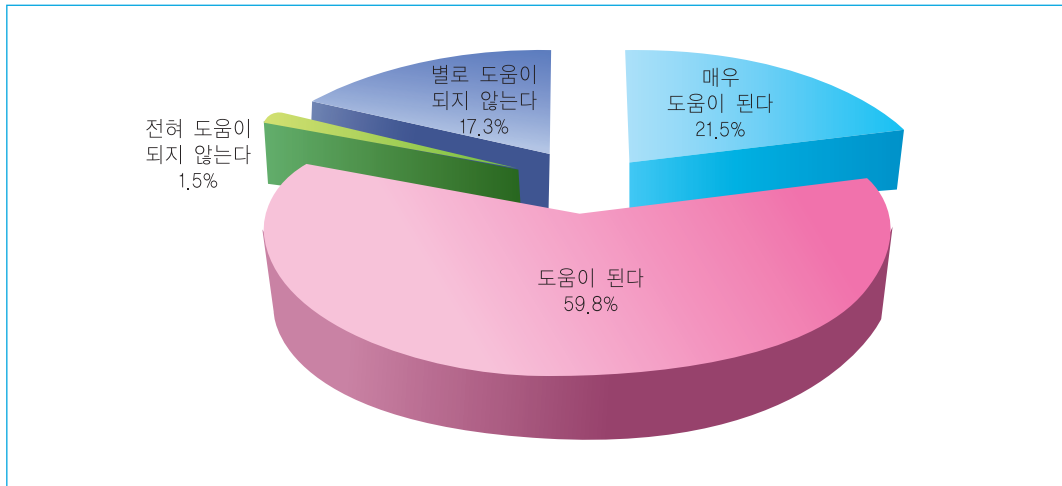
구분	있음	없음	구분	있음	없음
거주지역**			연령***		
도시	46.1	52.6	20대	49.4	49.4
농어촌	56.5	41.3	30대	43.0	55.6
			40대	48.6	50.9
학력***			50대	42.5	57.0
중졸이하	54.5	41.9	60대	54.1	43.2
고졸	50.0	48.6	70대이상	59.1	35.5
전문대졸/대졸	43.5	56.0			
대학원졸이상	44.1	52.9			
			전체 ¹⁾	48.0	50.5

** p<.05 *** p<.01

주: 1) 지난 1년간 가정상비약을 구입한 적이 없다'는 응답이 15명(1.5%)으로 나타남

○가정상비약 구입시 약사들이 해주는 설명의 도움 정도에 대해서는 81.3%의 응답자들이 '도움이 된다' (매우 도움이 된다: 21.5%, 도움이 된다: 59.8%)고 응답하였고, '도움이 되지 않는다' 는 응답은 18.8%로 나타났음

[그림 6] 가정상비약 구입시 약사로부터 사용방법 설명의 도움 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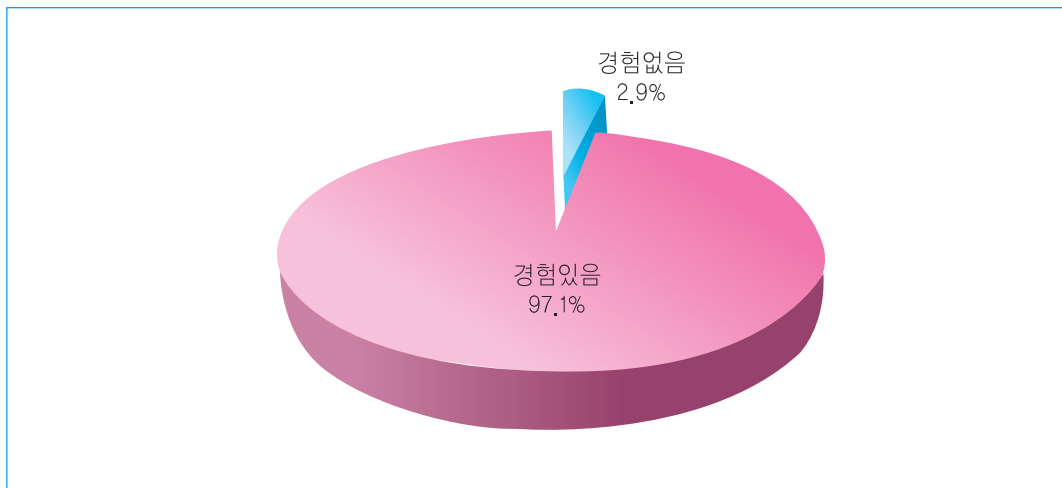


주: 분석대상 수는 '약사로부터 사용방법 설명을 들은 경험이 있는' 480명임

□ 가정상비약 사용시 부작용 경험 여부 및 부작용의 심각도

○지난 1년 동안 가정상비약을 사용하다가 본인이 부작용을 경험한 적이 있었던 응답자는 29명(2.9%)으로 나타났으며, 부작용을 경험하지 않은 비율은 97.1%로 조사되었음

[그림 7] 가정상비약 사용시 부작용 경험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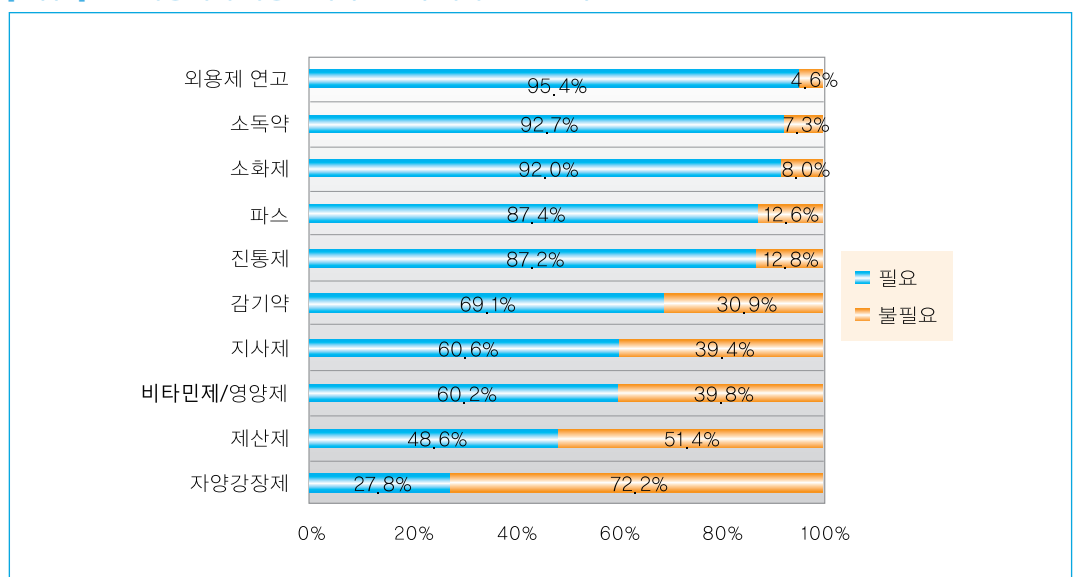
○부작용 심각도에 대해서 부작용을 경험한 응답자 29명 중 22명은 '가벼운 증상이어서 저절로 나았다' 고 응답하였고 '저절로 낫지 않아서 병의원이나 약국을 방문했다' 는 경우는 7명이었음

□ 일반가정에서 상비약으로 구비가 필요한 약

○ 소화제 등 10종류의 약을 제시한 후, 일반가정에서 상비약으로 갖추어 놓을 필요가 있는지를 조사

○ 조사 결과 외용제(95.4%), 소독약(92.7%), 소화제(92.0%), 파스(87.4%), 진통제(87.2%), 감기약(69.1%)등의 순으로 필요성이 있다는 응답이 높았음. 반면 자양강장제(27.8%)와 제산제(48.6%) 등은 가정상비약으로 갖추어야 할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낮게 조사되었음

[그림 8] 일반가정에서 가정상비약으로 구비가 필요한 약



[부록]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 조사 대상자 중 81.6%가 본인이 도시지역에 거주한다고 응답하였으며, 농어촌지역에 거주한다는 응답은 18.4%
- 남성과 여성의 비율은 거의 절반씩(남성: 49.1%, 여성: 50.9%)이었고, 연령군은 40대(22.0%), 30대(21.4%), 50대(18.6%) 등의 순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
- 학력수준은 전문대졸/대졸이 41.4%로 가장 많았고, 고졸 35.2%, 중졸 이하 19.8%, 대학원졸 이상 3.4%등의 순
- 직업은 전업주부가 24.1%로 가장 많았으며, 사무 종사자 17.8%, 서비스 종사자 13.2%,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9.9%, 판매 종사자 9.0% 등으로 분포

[표 5] 응답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단위: 명, %)

구분	N(%)		구분	N(%)	
지역			성별		
도시지역	816	(81.6)	남자	491	(49.1)
농어촌지역	184	(18.4)	여자	509	(50.9)
			직업		
연령군			관리자	12	(1.2)
20대	176	(17.6)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99	(9.9)
30대	214	(21.4)	사무 종사자	178	(17.8)
40대	220	(22.0)	서비스 종사자	132	(13.2)
50대	186	(18.6)	판매 종사자	90	(9.0)
60대	111	(11.1)	농림어업 종사자	43	(4.3)
70대 이상	93	(9.3)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29	(2.9)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	14	(1.4)
학력			단순노무 종사자	16	(1.6)
중졸 이하	198	(19.8)	전업주부	241	(24.1)
고졸	352	(35.2)	학생	41	(4.1)
전문대졸/대졸	414	(41.4)	무직	72	(7.2)
대학원졸 이상	34	(3.4)	기타	32	(3.2)
			전체	1,000	(100.0)

이상영(건강증진연구실장)

문의(yslee@kihasa.re.kr)

박실비아(보건의료연구실 연구위원)

문의(spark@kihasa.re.kr)

윤강재(보건의료연구실 부연구위원)

문의(kjyun@kihasa.re.kr)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홈페이지의 발간자료에서 온라인으로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http://www.kihasa.re.kr/html/jsp/public/public_01_01.jsp